

청소년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성차

이 명 숙

한국청소년개발원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기에 사춘기라는 급격한 신체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중학교 진학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전이를 경험하는 국민학교 6학년 남녀 학생들이 새롭게 자기의 능력을 평가해 가는 과정을 1년간 3회에 걸쳐 종단적으로 추적한 패널 연구이다. 개인의 행동스타일로서 정의되는 기질과 도래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능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단적 상관관계 분석결과, 남녀공히 사회능력의 지각은 도래의 지지와 상관이 있고 학업능력의 지각은 부모의 지지와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에게서는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여학생에 있어서는 두 변인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자기능력의 지각과 기질의 관계에서도 남녀 집단 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남학생은 주의집중성과 지속성 기질차원이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활동수준이 높은 것이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끝으로, 유의한 상관의 빈도를 기준으로, 자기평가에 대한 기질의 인성론모델과 조화적합성 모델을 비교하였고, 기질에 대한 도래의 맥락요구를 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모델에 대한 有意相關 빈도분석 결과, 두 모델은 예언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의 중심적인 발달과제 중 하나는 자기에 대한 느낌, 즉, 자기개념의 발달이다. 자기개념은 모든 물리적, 심리적 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들이 오랜시간 이성교제를 하고, 때로는 혼자 있거나 도래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기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일종의 탐색과정이다.

청소년기에 변모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부모, 도래 등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다. 청소년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는 청소년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나 행동의 수행 수준에 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위한 준거로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기평가 개념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반영적 평가(reflected appraisal) 기제를 통해서 발달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평가하고 그것

을 모방하거나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느낌'(sense of self)을 발달시킨다. Cooley (1964)에 의하면, 타인의 반영적 평가는 개인이 자기를 정의하는 정보를 구하는 사회적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자아(looking-glass self)"를 표상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모든 타인들의 견해가 자기에 대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 타인들보다 자기에 대해 특히 중요한 타인의 견해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llivan, 1953; O'Malley & Bachman, 1983; Rutter, 1985).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자기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화 주체(socializing agent)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광범위한 사회가 아니라, 청소년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주변 사람들의 견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은 청소년이 가진 속성이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태도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발달심리학 관점-예컨대, 발달적 맥락주의가 있다.

발달적 맥락주의

인간의 행동과 발달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Darwin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발달심리학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원래 '발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물학에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Lerner & Lerner, 1989). 하지만, 인간발달에 관한 견해 중에는 생물학적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수준의 분석단위들이 상호작용하여 인간행동 및 발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입장이 있다. 발달의 원동력으로서 생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맥락적 변인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오래전에 이미 Schneirla (1957)의 발달의 '순환기능'(circular function)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Gottlieb(1970)에 의해 "확률론적 개체발생론(probabilistic epigenesis)"으로 주장되었다. 이때 "확률론적"이란 개인의 행동발달의 결과 또는 발달제열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률적'임을 의미한다 (Gottlieb, 1970, p.123). 다시말해, 인간의 행동발달은 불가피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호환적 관계에 의해 특정 발달의 내용 및 전개속도가 정해지는 가소성(plasticity)을 갖는다는 것이다 (Lerner & Lerner, 1989).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해 자신이 갖는 개성에 따라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을 선택하고 환경에 대처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오는 요구에 대처하는 각자의 개성은 청소년이 사회환경으로부터 받는 귀환정보를 이끌어 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적 역할(agentive role)'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Lerner, 1982; Windle, Hooker, Lerner, East, Lerner, & Lerner, 1986).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을 이루어 가는 창조자"(Scarr, 1985)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기체가 갖는 고유한 개성이 주도적으로 인간과 맥락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강조하는 발달심리학의 입장을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라 한다.

기질의 조화적합성 모델

개인이 갖게 되는 개성(individuality)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유기체적 특성으로서, 심리학에서는 20세기 초부터 기질에 대한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질이 심리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사회맥락의 영향을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인성론 모델(personological model)과 조화적합성 모델(goodness-of-fit)으로 구분된다. 인성론 모델은 전통적 기질 모델로

서 Sheldon(1940, 1942)의 체형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기질은 사회적 맥락에 관계없이 심리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Plomin & Daniels, 1984). 그러나 조화적합성 모델은 기질이 심리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인간과 맥락간의 관계, 즉, 조화적합성을 중시한다. 기질이 주위 맥락과 조화를 잘 이루면 적응적 기제로 작용하는 반면, 부조화를 이루면 부적응적 심리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기조절적' 기제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Thomas & Chess, 1977, 1980; R. Lerner, 1982; 윤진과 김정민, 1991; 천희영, 1991).

조화적합성 모델의 이론적 기초는 Schneirla (1957)의 발달의 순환기능, Gottlieb (1983)의 확률론적 개체발생론, Lerner(1986)의 발달적 맥락주의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생물학적 개성을 가지고 사회적 맥락에 들어오고, 이러한 개성으로 인해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발달적 맥락을 스스로 생성하며, 이것이 다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개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순환적 기능을 하게 된다.

덧붙여서, Super와 Harkness(1981)는 사회적 맥락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맥락적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맥락특유이론(ethnotheory) 개념을 도입하였다. 맥락특유이론이란 '한 유형의 행동영역에 대해 특정한 하위문화집단이 갖고 있는 태도, 가치, 기대 등 신념체계'를 말한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기질에 대해 동일한 선호 또는 혐오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기질 속성이 상호작용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화적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인들이 갖는 기질에 대한 맥락적 요구, 즉, 맥락특유이론이 청소년의 기질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주된 연구목적들을 갖는다. 첫째, 자기평가에 미치는 기질 및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평가에 대한 기질 및 또래지지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성론모델과 조화적합성모델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다. 셋째, 또래의 맥락요구를 재는 기존 척도를 개정하여 보다 신뢰로운 척도를 고안함으로써 기질의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또래들이 청소년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지와, 기질적 행동에 대한 또래들의 태도(맥락요구)라는 두 가지 주요 심리사회적 기제를 통해 또래집단이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 또래의 영향을 측정할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방법론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Urberg, 1992). 첫째, 단일 시점에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적 자료로는 호환적 인과성(reciprocal causality)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과성의 방향을 추론할 수 없다(Rogosa, 1979). 둘째, 종래의 연구들에서 또래영향의 지표로서 친구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정도'를 묻는 자기보고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실제로 유사한 것보다 훨씬 더 친구들이 자기와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Davies & Kandel, 1981; Urberg et al., 1990; Urberg, 1992). 끝으로, 종래에 많이 사용해 온 단축형맥락요구 척도가 갖는 심리측정적 문제들을 들 수 있다(J. Lerner, 1983, 1984; Lerner, Lerner, & Zabski, 1985). 기질행동을 측정하는 기질차원척도(DOTS-R)는 54개 문항으로 10개 하위차원을 재는데 비해, 또래의 요구를 재는 단축형

척도는 1개 차원당 단지 1~2개 문항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척도 사이에는 신뢰도와 변산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이명숙, 199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두드러진 방법론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 발달연구에서 탐구하는 변인들은 대부분 실험적으로 조작하기 곤란한 유기체적 변인 - 성, 연령, 기질, 성격특성 등 - 이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례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측정하는 패널 연구가 바람직하다(Hannan & Young, 1977; Tuma & Hanna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간 3회에 걸쳐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적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기질에 대한 또래의 맥락요구를 측정할 때 또래의 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또래 각자가 청소년의 기질특성에 부여하는 태도(맥락요구)를 직접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청소년들의 지각이 자신의 행동 또는 태도에 의해 채색되어, 또래들의 태도를 자기와 유사하게 보는 편파적 지각 경향성을 연구설계상에서 통제할 수 있다. 셋째, 기질차원척도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또래의 맥락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고안함으로써 기질행동과 또래의 맥락요구 사이로 정의되는 조화적합성을 측정하는데 따르는 심리측정적 문제를 보완하였다.

자료 출처

본 연구는 국민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6학년말 또는 중 1학년말부터 시작하여 1년간 6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반복측정한 단기종단적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1차(Wave I)자료는 1993년 2월에, 제 2차(Wave II)자료는 1993년 7월에, 제 3차 자료(Wave III)는 1994년 2월에 수집하였다.

제 1차 측정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A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00명과, 인접 지역에 소재한 A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00명을 표적집단으로 표집하였다. 제 2차 측정에서는 1차 측정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A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포함하였다. 1,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1차 측정에 참여했던 학생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학년 및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전원(약 1500명)을 대상으로 2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기재된 작년의 학년, 반, 번호, 및 이름과 생년월일을 단서로 하여 1차 측정에 참여했던 표적집단으로서 2차 측정에 참여한 학생을 설문지 상에서 선별하였다. 그 결과, 1학년에서 199명, 2학년에서 303명의 표적집단이 파악되었다. 제 3차 측정에서도 A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차 및 2차 측정에 참여한 피험자의 자료만을 선별하여 표적집단에 포함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민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말까지 3차에 걸친 자료측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179명(남자 109명, 여자 70명)의 자료에 한정하였다.

절 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영문판 심리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먼저 한글로 번안한 후, 청소년기까지 미국에서 성장한 이중언어 사용자인 대학원생 2명이 이것을 역번역하였다. 역번역문이 원문과 상이한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측정시점은 매학기마다 학기말 고사가 끝난 지 1주일 이내에 실시하였다. 특별히 시험이 끝난 지 1주일 이내로 측정시점을 택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때가 시험 때이므

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유용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5명이 조사원으로서 자료수집에 참여하였으며, 조사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집단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급에서 조사원이 지시문을 읽어주고 유의사항 및 응답방식을 설명해 주고, 만약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문 도중에 손을 들어 질문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잠재 변인으로서 기질, 또래의 맥락적 요구, 또래의 사회적 지지, 자기평가 등의 측정지표 및 심리측정도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두가지 유형의 지수로 나타내었다. 하나는 각 Wave 별로 산출한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 α 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경과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 지수이다. 안정성지수는 2회에 걸쳐 측정한 종단적 회귀계수의 추정치(β)를 의미한다.

기질,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 개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기질은 개정판기질차원척도(Dimensions of Temperament Scale-Revised) 중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6개의 기질차원-일반적 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본, 주의집중성, 지속성-만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Harter에 의해 개발된 사회지지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여 친구, 급우, 부모 등 주요한 사회화 주체별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기평가는 Harter(1983)의 자기능력지각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자기존중감,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품행, 신체매력 등에 대한 자신의 지각정도를 측정하였

다.

또래와의 기질적합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기질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DOTS-R)와 동일한 34개 문항 (6개 차원에 한정)으로 구성된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 또래맥락특유이론』으로 개정하여 청소년 자신이 또래에게 부과하는 기질에 대한 요구 또는 태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방식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가장 친한 동성 친구 세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한 다음, “여러분의 친한 친구 ()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그 행동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표시하세요.”라는 지시문을 주고 개정판 기질차원척도의 각 문항에서 기술되는 행동들에 대하여 Likert형 4점 척도상에 응답케 하였다. 즉, 청소년 자신이 친구의 그런 행동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친구의 기질특성때문에 대인적 상호작용이 까다로울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기질 맥락요구-를 측정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청소년 각자가 보고한 자신의 ‘기질맥락요구’점수를 사용해서 두 종류의 ‘또래와의 조화적합성’ 변인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이다. 청소년(A)이 학급에서 가장 친하다고 선택한 친구 세 사람(B, C, D)이 응답한 ‘기질 맥락요구’점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서 기질차원별로 세사람의 요구점수를 평균한 값을 청소년(A)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맥락요구’로 정의하였다. 청소년(A)이 응답한 ‘기질맥락요구’ 점수는 A를 친한 친구라고 선택한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맥락요구’점수의 생성에 사용된다. 따라서 반에서 아무에게도 친구로 선택되지 않는 학생이 갖는 ‘기질맥락요구’점수는 다른 학생들의 ‘친구의 맥락요구’변인생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친구의 맥락요구’ 점수는 SAS/IML 프로그램을

표 1. 척도별, 측정시점별 변인의 신뢰도 및 안정성

개 념	문항수	신뢰도 ¹⁾			안정성 ²⁾	
		W1	W2	W3	W1→W2	W2→W3
기질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				
(DIMENSIONS OF TEMPERAMENT SCALE-REVISED)						
활동수준	7	.79	.77	.76	.60	.59
접근-철회성	6	.72	.66	.70	.60	.56
융통-경직성	6	.53	.53	.61	.52	.56
기분	7	.79	.82	.81	.61	.56
주의집중성	5	.68	.80	.73	.55	.56
지속성	3	.75	.77	.75	.57	.47

기질맥락요구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						
또래의 맥락특유이론(DOTS-R : ETHNOTHEORY)						
활동수준	7	.70	.64	.51	.43	.45
접근-철회성	6	.60	.70	.67	.35	.45
융통-경직성	6	.58	.66	.55	.24	.40
기분	7	.79	.83	.84	.35	.48
주의집중성	5	.60	.67	.57	.27	.21
지속성	3	.66	.73	.69	.39	.35

사회적 지지 사회지지 척도						
(HARTER'S SOCIAL SUPPORT SCALE)						
친구 지지	13	.74	.79	.77	.51	.59
급우 지지	11	.69	.75	.74	.46	.58
부모 지지	6	.59	.65	.68	.50	.64

자기평가 자기능력지각 척도						
(HARTER'S PERCEIVED COMPETENCE SCALE)						
학업능력	6	.64	.68	.57	.56	.59
사회능력	6	.50	.39	.44	.50	.59
운동능력	6	.67	.70	.68	.60	.66
신체 매력	6	.65	.68	.69	.54	.66
품행	6	.56	.60	.56	.53	.61
자기존중감	6	.64	.73	.66	.59	.55

통해 산출하였다(이명숙, 1994).

두번째 단계로서, 기질차원별로 피험자의 기질 행동 점수에서 친구의 맥락요구점수를 뺀 값의 절대값을 구해 '친구적합성'점수를 산출하였다. 다른 하나의 적합성 점수인 '급우적합성'변인은 기질에 대한 일반 급우들의 평균적 맥락요구와 청소년의 실제 기질행동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일반급우들이 갖고 있는 기질에 대한 평균적 맥락요구는 친구의 맥락적 요구를 산출할 때 사용했던 '맥락요구'에 대한 학급별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급에 속한 청소년들은 모두 동일한 급우의 맥락요구점수를 갖게 된다. '급우적합성' 점수는 (친구적합성의 산출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청소년자신의 기질행동점수에서 급우의 맥락요구점수를 뺀 값의 절대값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성차 분석

일원 변량분석 : 기질 변인(기질행동, 친구적합성, 및 급우적합성),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에 있어서 남녀 청소년집단사이에 보이는 성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기질 행동변인 6개 차원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온 것은 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주의집중성 차원으로서, 각각의 차원에서 남녀간 평균 차이는 .34 SD, .28 SD, .33 SD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수준이 높고,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는 특성이 높으며 주의집중성 수준이 높았다. 친구 또는 급우와의 조화적합성을 나타내는 차이점수 변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1) 신뢰도계수는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이다.

2) 안정도계수 W1→W2는 Wave I 변인으로 Wave II 변인을 예언할 때의 회귀계수(β), W2→W3는 Wave II 변인으로 Wave III 변인을 예언할 때의 회귀계수이다.

표 2. 기질, 사회지지, 및 자기평가에 대한 성차 : 일원 변량분석

예연변인	남자평균(SD) ¹⁾	여자평균(SD)	F값	종속변인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기질 행동(WAVE I)				사회적 지지(WAVE I)			
활동수준	.15(.94)	-.19(1.01)	4.97*	친구지지	-.16(.98)	.30(.93)	10.69**
접근철회성	.13(1.04)	-.15(.87)	4.74*	급우지지	-.09(.99)	.24(.92)	4.92*
융통경직성	-.05(1.00)	.13(.96)	1.95	부모지지	.08(.97)	-.16(1.07)	1.79
기 분	-.01(1.02)	.08(.91)	.63	자기 평가(WAVE I)			
주의집중성	.10(.98)	-.23(.92)	4.46*	학업능력	.04(1.03)	-.15(.88)	2.05
지속성	.00(1.00)	-.07(.96)	.18	사회능력	.08(.94)	-.14(1.08)	3.60*
친구 적합성(WAVE I)				운동능력	.21(.95)	-.41(.94)	21.41***
활동수준	.88(.67)	.88(.79)	.00	신체매력	.11(.98)	-.23(.96)	4.46*
접근철회성	1.15(.95)	1.06(.73)	.48	품 행	-.11(1.00)	.20(.90)	4.64*
융통경직성	1.15(.88)	.93(.72)	3.29	자기존중감	.13(.91)	-.23(1.08)	5.59*
기 분	1.15(.87)	1.04(.83)	.82	사회적 지지(WAVE II)			
주의집중성	1.17(.88)	1.08(.72)	.47	친구지지	-.14(1.06)	.30(.67)	10.63**
지속성	1.26(.86)	.99(.79)	4.89*	급우지지	-.17(.97)	.35(.87)	12.19***
급우 적합성(WAVE I)				부모지지	.15(.92)	-.20(1.04)	5.88*
활동수준	.76(.94)	1.17(1.25)	6.80**	자기 평가(WAVE II)			
접근철회성	.80(1.03)	.94(1.15)	.82	학업능력	.08(1.01)	-.18(.97)	3.8*
융통경직성	.92(1.20)	.68(1.07)	2.07	사회능력	.01(.93)	-.03(1.13)	.28
기 분	.97(1.32)	.73(1.03)	1.84	운동능력	.14(.97)	-.22(1.02)	6.10*
주의집중성	.78(1.02)	1.08(1.14)	2.62	신체매력	.16(1.04)	-.33(.93)	9.66***
지속성	.83(1.11)	.87(1.03)	.07	품 행	.02(1.04)	-.03(.93)	.06
				자기존중감	.22(.91)	-.38(1.06)	17.08***

* p<.05
 ** p<.01
 *** p<.001

남녀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또래와의 적합성 변인은 제외하고 청소년 자신의 기질행동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친한 친구 및 급우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경

향성은 국민학교 6학년(Wave I)이나 중학교에 진학한 후(Wave II)에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친구지지와 반대방향으로 남녀간 성차를 보였다. 즉, 국민학교 때는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차이가 있다고 지각하지 않았으나, 중학생이 된 후에는 남학생

1)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준점수이다.

이 여학생보다 부모에게서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였다(남녀간 평균차이는 중학생일 때 .35 SD).

자기평가 변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신체적 매력, 품행 등 영역에서 국민학생 시기와 중학생 시기에 공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예외적인 것은 국민학교 시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품행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여학생 자신의 품행에 대한 지각수준이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의 변화가 .23 SD). 세부적인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에 있어서도 국민학생 및 중학생 시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학생 시기에는 운동능력지각과 자기존중감에서 남녀 사이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났으나 (운동능력의 남녀차이는 .62 SD, 자기존중감의 남녀차이는 .46 SD), 중학생이 된 후에는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남녀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의 남녀 차이는 .60 SD, 신체적 매력지각의 남녀 차이는 .49 SD).

종단적 상관관계 : 남녀 집단 각각에서 기질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와 이루는 종단적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기질변인은 국민학교 6학년말 (Wave I)에 측정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중학교 진학한 뒤 6개월후(Wave II)에 측정한 것이며, 자기평가는 다시 그로부터 6개월후인 중학교 1학년말(Wave III)에 측정한 것이다.

측정지표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빈도를 기준으로 이원관계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남녀 집단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평가와의 관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기질과 자기평가와의 관계, 그 다음이 기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

계이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Wave II)와 자기평가(Wave III)사이의 이원관계에서, 남학생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지보다는 친구 또는 급우의 지지가 자기평가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친구지지 및 급우지지가 사회능력지각, 학업능력지각, 운동능력지각, 자기존중감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지지는 학업능력지각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에게서는 또래들의 지지가 부모의 지지보다 자기평가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친한 친구의 지지는 여학생들의 사회능력지각 및 운동능력지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급우들의 지지는 사회능력지각과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며 품행과도 높은 상관을 가졌다. 그리고 부모의 지지는 여학생들의 학업능력지각과 신체적 매력지각과 높은 상관을 가졌다.

다음으로, 기질(Wave I)과 자기평가(Wave III)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는, 남학생 경우에 기질중에서 주의집중성과 지속성이 자기평가의 여러 영역들과 다양하게 높은 상관을 가졌다. 즉, 국민학교 6학년 남학생의 주의집중성 및 지속성이 1년후의 품행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학업능력지각 및 자기존중감과도 높은 상관이 있었다. 그외에도 남학생들의 접근-철회성 및 기분 기질이 학업능력지각 및 운동능력지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활동수준 기질차원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의 사회능력지각, 운동능력지각, 품행, 자기존중감, 신체적 매력지각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기분 기질차원도 사회능력지각, 신체적 매력지각, 및 자기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접근-철회성 기질차원도 사회능력지각 및 자기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국민학교 때 활동수준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고 새로운

표 3. 남녀별 종단적 상관관계

		Wave I					Wave II			
		활동 수준	접근 회피	용통 경직	기 분	주 의 집중성	지속성	친구 지지	급우 지지	부모 지지
Wave II										
친구지지	전체	-.04	.22**	.18*	.22**	.13	.21**			
	남	-.02	.29**	.20*	.17	.19	.27**			
	여	.04	.18	.06	.31**	.19	.14			
급우지지	전체	-.04	.18*	.16*	.26***	.11	.17*			
	남	.00	.25**	.16	.18	.18	.20*			
	여	-.02	.17	.11	.38**	.13	.15			
부모지지	전체	-.01	.08	.10	.17*	-.03	-.02			
	남	.05	.07	.15	.22*	-.09	.02			
	여	-.14	.04	.10	.13	-.03	-.08			
Wave III										
사회능력	전체	.26***	.23**	.00	.27***	.04	.05	.39***	.45***	.09
	남	.14	.16	.01	.15	.11	.17	.42***	.43***	.08
	여	.45***	.39***	-.02	.46***	-.04	-.13	.38**	.50***	.12
학업능력	전체	-.02	.18*	.11	.15*	.17*	.09	.25**	.23*	.26***
	남	-.15	.20*	.15	.22*	.27**	.20*	.34***	.33***	.19*
	여	.15	.09	.05	.04	-.05	-.12	.11	.12	.33**
신체적대력	전체	.16*	.14	-.16	.10	.09	.01	.04	.10	.19*
	남	.06	.07	-.01	.07	.11	-.00	.11	.21*	.11
	여	.24*	.19	-.07	.28*	-.07	.01	.14	.11	.26*
운동능력	전체	.28***	.24**	.02	.21**	.13	.09	.13	.11	.05
	남	.23*	.22*	.08	.28**	.17	.16	.21*	.19*	-.02
	여	.29*	.18	.01	.19	-.05	-.04	.24*	.19	.04
품 행	전체	-.20**	-.04	.14	.12	.29***	.35***	.11	.20**	.20**
	남	-.18	-.00	.13	.13	.41***	.45***	.11	.17	.18
	여	-.26*	-.13	.16	.13	.07	.16	.19	.34**	.22
자기존중감	전체	.12	.15*	.00	.12	.14	.17*	.15*	.13	.25***
	남	-.03	.06	-.01	.09	.24*	.26**	.25**	.25**	.26**
	여	.26*	.24*	.09	.25*	-.10	.02	.17	.13	.17

* p<.05
 ** p<.01
 *** p<.001

상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던 여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자기의 사회적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여학생의 높은 자기존중감과 신체적 매력에 지각수준 또한 그가 갖는 활동수준 및 기본 기질차원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끝으로, 기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자기평가와 사회적 지지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질이 부모지지보다는 또래지지와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남학생 경우는 접근-철회성 기질과 지속성 기질이 친한 친구 및 급우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높은 상관이 있고, 여학생에게서는 기분 기질이 친구 또는 급우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달리 말하면, 남학생은 국민학교 때 새로운 상황에 접근을 잘하는 기질을 가졌던 것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또래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긍정적인 기분 기질특성을 갖는 것이 또래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관계 있었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사회능력지각은 남녀 공히 또래지지와 상관이 있고 부모지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학업능력지각은 남녀공히 부모지지와는 상관이 있었고, 남학생 집단에 한해서만 또래지지가 학업능력지각과 상관이 있었다. 또, 자기존중감은 남학생집단에서는 중요한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일관성있게 높은 상관관을 보였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자기평가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기질 면에서는 주의집중성과 지속성이 높은 남학생들이 나중에 자신의 품행과 학업능력 및 자기존중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접근성이 높거나 기분이 긍정적인 남학생은 자기의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남학생과는 대조적으로, 여학생에 있어서는 주의 집중성과 지속성 기질이 자기평가와 아무런 상관

이 없는 반면에, 활동수준 차원이 여학생의 자기평가 영역들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중다회귀분석: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측정지표 중에서 다른 변인들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쌍을 귀납적으로 선정하여 구성된 9개의 회귀모델에 대하여 남녀별로 검증하였다(표 4 참조). 변인을 선정한 기준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유의상관(significant correlation)을 얻는 능력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기질의 지표로는 활동수준, 기분, 지속성, 그리고 자기평가의 지표로는 사회능력지각, 학업능력지각, 자기존중감이 선정되었다. 친구지지와 급우지지는 기질 및 자기평가와 이루는 상관의 정도 및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지표로서 급우지지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급우지지 대신에 부모지지가 들어간 회귀모델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또래지지와 부모지지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남녀 학생 각각에 대하여 자기평가에 미치는 또래지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 영역에 따라 기질(활동수준, 기분, 지속성)과 또래지지가 자기평가(사회능력지각, 학업능력지각,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상이한 패턴으로 나왔다. 기질과 또래지지로 자기평가를 예언할 때, 또래지지의 효과는 매우 높게($\beta = .20 \sim .40$) 나온 것에 비해 기질의 효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집단에서는 세가지 자기평가 영역(사회능력지각, 학업능력지각, 자기존중감)에 대하여 또래지지가 유의한 예언력을 가졌다.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도 특히 사회능력지각(최대 $R^2 = .19$)에 대한 또래지지의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업능력지각, 자기존중감 순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기질과 또래지지의 효과가 사회능력지각을 예언하는 경우만 유의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사회능력지각에 대한 활동수준 기질과 또래지지의 예언력

표 4. 남녀별 중다회귀 분석

집단별 예언변인 준거변인	남 학생						여 학생					
	활동 수준	도래 지지	R ²	활동 수준	부모 지지	R ²	활동 수준	도래 지지	R ²	활동 수준	부모 지지	R ²
사회능력	.13 ¹⁾	.40 ^{***}	.19	--	--	--	.46 ^{***}	.60 ^{***}	.44	.47 ^{***}	.17	.21
학업능력	-.16	.34 ^{***}	.12	-.17	.23 [*]	.05	--	--	--	.16	.31 ^{***}	.16
자기존중감	-.03	.24 ^{**}	.05	-.04	.27 ^{***}	.05	.24 [*]	.15	.06	.26 [*]	.19	.08
	기본	도래 지지	R ²	기본	부모 지지	R ²	기본	도래 지지	R ²	기본	부모 지지	R ²
사회능력	.07	.39 ^{***}	.17	--	--	--	.36 ^{**}	.45 ^{***}	.31	.51 ^{***}	.06	.19
학업능력	.17	.31 ^{**}	.12	.19	.17	.05	--	--	--	.007	.29 ^{**}	.08
자기존중감	.05	.23 [*]	.05	.03	.26 ^{**}	.05	--	--	--	.25 [*]	.14	.06
	지속성	도래 지지	R ²	지속성	부모 지지	R ²	기본	도래 지지	R ²	기본	부모 지지	R ²
사회능력	.08	.39	.18 [*]	--	--	--	-.23 [*]	.63 ^{***}	.27	--	--	--
학업능력	.14	.31 ^{***}	.11	.20 [*]	.21	.06	--	--	--	.09	.28 ^{**}	.09
자기존중감	.21 [*]	.20 ^{**}	.09	.24 ^{**}	.27 ^{**}	.12	--	--	--	--	--	--

* p<.05
** p<.01
*** p<.001

은 모든 회귀모델 중에서 가장 높았다(최대 R² =.44).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모 지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집단에서는 사회능력지각에 대해서 도래지지의 예언력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지지의 예언력은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존중감에 대하여는 기질차원에 관계없이 부모지지의 예언력이 유의하였다($\beta=.27$; 최대 R²=.12). 여학생집단에서는 학업능력지각에 대해서만 부모지지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왔다. 이것은 앞에서 도래지지가 여학생의 사회능력지각에 대하여만 유의하게 예언한다는 결과와 대조적인 것이다.

유의상관 빈도분석

기질행동 및 기질적합성 변인 유형별로 생성한 有意相關(significant correlation)의 갯수에 대한 빈도분석은 기질에 대한 인성론모델과 조화적합성모델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성론모델과 조화적합성모델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유의한 상관의 수를 선택한 것은, 한 유형의 기질변인(예: 조화적합성)이 다른 유형의 기질변인(예: 기질행동)에 비해 유의한 상관을 더 많이 생성하는 것이 일종의 '변인의 우월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질변인별로 갖는 유의한 상관의 수를 측정치로 하는 빈도표에 대한 χ^2 검증에서 유의하게 높은 χ^2 값이 나오

1) 계수는 경로모델의 경로추정치이다.

표 5. 기질변인유형별 유의상관과 비유의상관의 빈도

	기 질 변 인 유 형 ¹⁾					
	기질 친구		급우 친구		계	
	행동 적합성I	적합성I	적합성II	적합성II		
유의 상관 ²⁾	28	9	21	11	4	73
비유의상관 ³⁾	26	45	33	43	50	197

면 두 유목변인 - 기질변인 유형 및 유의/비유의 상관 -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기질행동변인(인성론모델)과 기질적합성 변인(조화적합성모델) 사이에 설명력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유의상관 빈도분석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는, 6가지 기질차원(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 각각에 대한 5가지 유형의 기질변인을 생성하여 각 유형의 기질변인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 지표들과 갖는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각 기질변인 유형별로 6가지 기질차원들이 사회적 지지(3가지 지표) 및 자기평가(6가지 지표)와 이루는 상관계수(54개) 중에서 기질행동 변인이 28개, 급우적합성I 변인이 21개, 친구적합성I이 9개의 유의상관을 생성하였다(표 5 참조). 그런 다음에는 기질변인 유형별로 有意相關을 생성하는 빈도와 非有意相關을 생성하는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χ^2 분석을 하였다(표 6 참조). 유목변인의 유의상관빈도에 대한 독립성 검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AS의 CATMOD절차이다(이명숙, 1994).

표 6. 기질변인유형별 유의상관과 빈도분석결과 : 변량분석 및 가중최소자승화 (MLS) 분석

	추정치	SD	df	χ^2	p
제1 모델					
친구적합성 대 기질 행동	.91	.24	1	15.05	.0001
제2 모델					
급우적합성 대 기질 행동	.26	.20	1	1.82	.1773
제3 모델					
급우적합성 대 친구적합성	-.65	.24	1	7.49	.0062

기질행동 변인과 친구적합성I 변인을 대비시킨 검증(제1 모델)에서는 기질변인유형과 유의상관 빈도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chi^2=15.05$, $df=1$, $p<.01$). 즉, 기질행동이 친구적합성보다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에 대하여 더 많은 수의 유의상관을 얻었다. 그러나, 기질행동과 급우적합성을 대비시킨 검증(제2 모델)에서는 기질변인유형과 유의상관의 빈도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이 지지되었다($\chi^2=1.82$, $df=1$, $p>.05$). 이것은 청소년의 기질행동과 급우적합성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와 이루는 유의상관의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친구적합성I과 급우적합성I을 대비시킨 검증(제3 모델)에서는 기질변인 유형과 유의상관의 빈도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chi^2=7.49$, $df=1$, $p<.01$). 다시 말하면, 급우적합

- 1) 기질행동 : 특정의 기질적 행동에 대한 피험자의 자기보고
친구적합성 I : 청소년의 기질행동과 친한 친구들의 태도 차이
급우적합성 I : 청소년의 기질행동과 급우들의 태도 차이
친구적합성 II : 청소년의 태도와 친한 친구들의 태도 차이
급우적합성 II : 청소년의 태도와 급우들의 태도 차이

- 2) 유의 상관은 특정의 기질변인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 변인과 이루는 54개의 이원상관 중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계수의 갯수

- 3) 비유의 상관은 특정의 기질변인이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 변인과 이루는 54개의 이원상관 중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상관계수의 갯수

성은 친구적합성보다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에 대하여 유의하게 더 많은 수의 유의상관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초기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평가와 이루는 유의한 상관을 생성하는 능력면에서, 기질에 대한 조화적합성모델이 인성론모델보다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논 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두가지 두드러진 연구결과는, 조화적합성모델이 인성론모델보다 우월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 및 급우들의 사회적 지지가 남학생의 자기존중감에는 영향을 주지만 여학생의 자기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맥락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조화적합성모델이 인성론모델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두 모델이 생성하는 유의한 상관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인성론모델이 조화적합성모델보다 약간 더 효율적인 모델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두 모델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예; Lerner, 1983; Windle et al., 1986)에서도 조화적합성모델에 비해 인성론모델이 보다 강력한 모델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론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화적합성모델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맥락요구'의 측정 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조작적으로 정의된 '맥락요구'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외부적 압박(press)으로 작용했는가, 또 그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의 문제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질에 대한 조화적합성모델을 청소년기에 적용하는 이론적인 접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본래 조화적합성모델은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관찰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 모델로서, 기질은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개념으로서 어릴때부터 그 근원이 조성된다. 어릴 때는 부모가 가장 강력하면서 거의 유일한 사회화 주체이고 유아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말거나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행동이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적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예, Thomas & Chess, 1977; Thomas & Chess, 1980; Garnezy, 1981).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주변의 중요한 타인 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청소년단체, 매스컴, 공공시설 등 다양한 '사회'에 노출되고(Rosenberg, 1989),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Windle & Lerner, 1984), 특정한 사회화 주체와의 적합성 정도가 청소년의 적용 또는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두번째로 흥미로운 결과는,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 사이에 아무런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기존중감이 다른 자기평가 지표들 - 예컨대, 학업능력, 사회능력, 품행 등 - 보다 종단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존중감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낮게 추정될 수 있다(이명숙, 1994). 다시 말하면, 현재의 자기존중감(Wave II)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전의 자기존중감(Wave I)이 설명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예언변인들이 자기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따라 또래집단의 영향이 분화됨을 시사한다. 특히, 여학생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지각에는 또래들의 지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나, 자기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데는 또래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다른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Cronbach & Furby, 1970) 차이점수 또는 변화점수는 신뢰도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차이점수는 여기에 포함된 요소점수보다 덜 신뢰롭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화적합성 모델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적합성변인을 생성하는 방법론으로서 종래의 차이점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적합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시도가 요청된다. 그외에도, 후속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자기존중감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 다른 조절변인(moderator)들을 탐색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을 심리사회적 요인에만 제한시켜 자료를 생성하였다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은 사회의 가치를 비취주는 반영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기대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탐색하여 청소년기부터 여성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명숙 (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진·김정민 (1991). 인간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그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43-60.
- 천희영 (1991). 기질연구의 비판적 고찰. 고신대 학 논문집, 19, 127-144.
- Cooley, C. H. (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 Garnezy, N. (1981). Children under stress: Perspectives on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to psychopathology. In A. I. Rabin, J. Aronoff, A. M. Barclay, & R. A. Zucker (Eds.), *Further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Gottlieb, G. (1970). Conceptions of prenatal behavior. In R. Aronson, S. Tobach, D. S. Lehrman & J. S. Rosenblatt (Eds.),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behavior: Essays in memory of T. C. Schneirla*. New York: W. H. Freeman.
- Harter, S. (1983).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3-97.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soci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 in early adolescents: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49-157.
- Lerner, R. M. (1982). Children and adolescents as producers of their own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2, 342-370.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 Lerner, R. M., & Lerner, J. V. (1989). Organismic and social contextual bases of development: The sample case of adolescence.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69-85). San Francisco: Jossey-Bass.
- O'Malley, P. M., & Bachman, J. 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Plomin, R., & Daniels, D. (1984). The intera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30, 149-162.
- Rogosz, D. (1979). Causal models in longitudinal research: Rationale, formulation, and interpretation. In J. R. Nesselroade & P. B. Baltes (Eds.), *Longitudinal research in the stud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Chapter 10)*. New York: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5).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in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349-368.
- SAS Institute, Inc. (1985). *SAS user's guide: Statistics (Version 5)*. Cary, NC: SAS Institute, Inc.
- Scarr, S. (1985). Constructing psychology: Making facts and fables for our times. *American Psychologist*, 40, 499-512.
- Schneirla, T. C. (1957).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sychology. In D. B. Harris (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pp. 78-108)*.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heldon, W. H. (1940). *The varieties of human physique*. New York: Harper.
- Sheldon, W. H. (1942). *The varieties of temperament*. New York: Harper.
- Specht, D.A. (1975) On the evaluation of causal models. *Social Science Research*, 4, 113-133.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uper, C. M., & Harkness, S. (1981). Figure, ground and gestalt: The cultural context of the active individual.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 (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 Mazel.
- Thomas, A., & Chess, S. (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indle, M., Hooker, K., Lerner, K., East, P., Lerner, J. V., & Lerner, R. M. (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ived Self-Competence

Myung-Sook Le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This study is a short-term longitudinal panel study which has followed the changes in self-competence of 6th-grade boys and girls who wer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in terms of growth spurt, physio-psychological change, and middle school entrance. Especially, the gender difference in perceived self-competence is focused with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peers and temperament defined as a behavioral style. In a longitudinal correlational analysis, it is a common result in boys and girls that social competence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er support and academic competence is correlated with parental support. Howev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global self-esteem; that is, boys's self-esteem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however, girls's self-esteem is not. In addition, gender difference is shown in the bivariat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etence and temperament; that is, boys's self-competence is highly correlated with distractibility and persistence, however, girls's self-competence is highly correlated with general activity level. Finally, this study compares the Goodness-of-Fitness model of temperament with the Personological model and proposes a new methodology of assessing peer demand for temperament. In a frequency analysis of significant correlations, a difference of predictability between two models is not found.

KEY WORDS: Short-Term Longitudinal Panel Study, Developmental
Contextualism, Temperament, Goodness-of-Fitness,
Social Support, Perceived Self-Competence